

[이슈19]

제4차 산업혁명이 워라밸을 촉진

워라밸시대 제4차 산업혁명 유망주에 투자하자

2018/07/02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워라밸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을 듯

어제(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주목받고 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달 및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카가 되는 것이고, 공장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팩토리가 되는 것이고, 집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홈이 되는 것이고, 도시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시티가 되기 때문이지만 이것에 대한 본질은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화를 의미한다. 이는 곧 전 세계를 저비용 고효율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업이나 건설 및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투여하는 노동시간이 경쟁력의 절대 요소였지만 저비용 고효율화 구조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즉, 제조업 기지가 값싼 노동력을 따라 선진국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 되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발달과 함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노동량 변수가 줄어들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환경하에서 고객들이 쏟아낼 방대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할 때 상상하지도 못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경제 성장은 인구수로 결정되는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라 혁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워라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제4차 산업혁명 유망주 2선:

- 유니퀘스트(077500): 드림텍 등 꿈은 이루어진다
- 셀바스AI(108860): 의료 서비스 분야 진출로 성장성 부각

Analyst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워라밸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을 듯

어제(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말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주목받고 있다.

워라밸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달 및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전세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재성장을도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성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는 곧 수요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Q)이 중점이 되는 하드웨어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공급자, 수요자, 정부 등도 효율화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맞춤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모든 사물에 센서, 통신칩을 집어 넣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사물의 지능화로, 현재 보다는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단지 정보만 쌓이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아닌 내게 딱 들어맞는 맞춤형 정보 획득을 가능케 하여 사전적 이든 사후적 이든 인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카가 되는 것이고, 공장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팩토리가 되는 것이고, 집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홈이 되는 것이고, 도시에 통신을 연결하면 스마트시티가 되기 때문이지만 이것에 대한 본질은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화를 의미한다. 이는 곧 전 세계를 저비용 고효율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은 향후 20~30년 이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농업이나 건설 및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투여하는 노동시간이 경쟁력의 절대 요소였지만 저비용 고효율화 구조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즉, 제조업 기지가 값싼 노동력을 따라 선진국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 되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발달과 함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노동량 변수가 줄어들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환경하에서 고객들이 쏟아낼 방대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할 때 상상하지도 못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경제 성장은 인구수로 결정되는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라 혁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워라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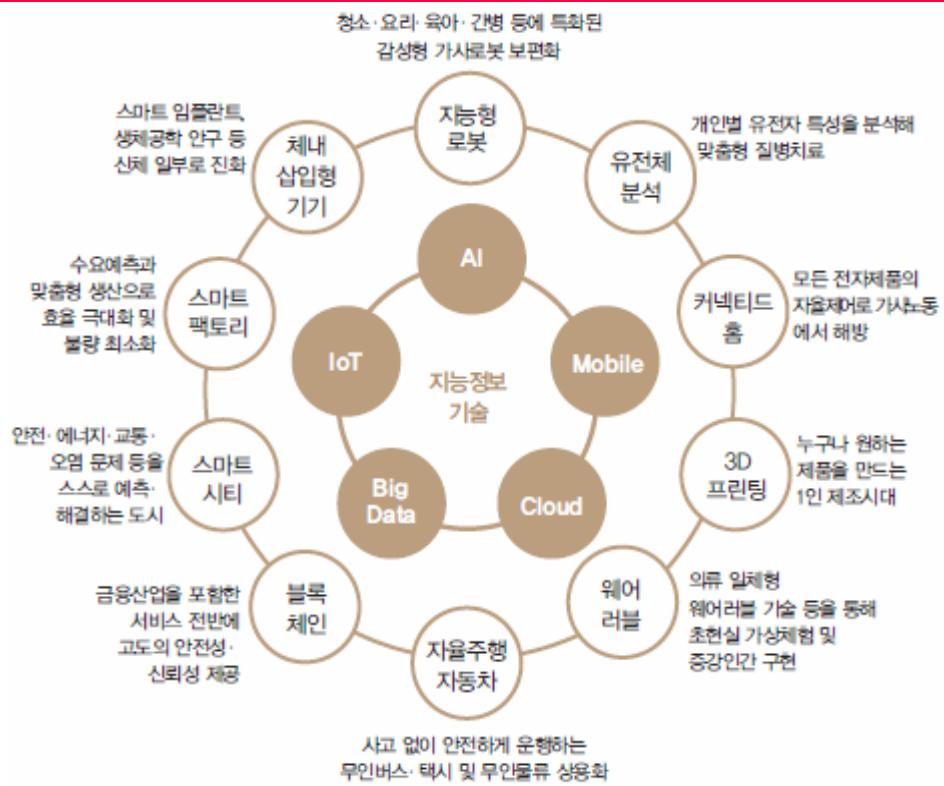
자료: OECD,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기술

개념	IoT	Mobile	Cloud & Big Data	A.I.	새로운 가치
	모든 기계·인간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정보처리능력 고도화로 데이터 축적·분석강화		기계가 데이터를 퍼뜨리게 학습해 새로운 지능정보가치 창출
	 CCTV				 스마트팩토리 → 생산비용 절감
	 자동차				 자율자동차·스마트교통 → 교통사고 감소
	 가전		 정보저장	 인공 지능	 스마트홈 → 생활 편의성 향상
	 의료건강		 정보처리		 스마트 웰스케어 → 의료비 감소
	 기반시설		 정보관리		 스마트 인프라 → 안정적 에너지 수급
특징	만물의 데이터화	실시간 반응	자율 진화		무인 의사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의 융합 예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투자증권

<표 1> 제4차 산업혁명 유망종목 15 선

구분	종목	종목코드	시가총액(억 원)(6/29기준)
플랫폼 및 콘텐츠	카페24	042000	16,017
	아프리카TV	067160	5,279
	넥스터	206560	2,366
스마트카	에코프로	086520	7,455
	엘앤에프	066970	12,545
	유니퀘스트	77500	2,264
	켐트로닉스	089010	809
헬스케어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6,523
5G	유비쿼스	264450	1,202
	이노와이어리스	073490	963
AI	셀바스AI	108860	1,265
빅데이터	비즈니스온	138580	2,444
클라우드	비트컴퓨터	032850	1,061
스마트팩토리	에스피지	058610	2,109
핀테크	코나아이	052400	1,836

자료: 하이투자증권

<표 2>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유망주

구분	투자유망종목
콘텐츠	펄어비스, JYP Ent., 에스엠, 텍스터, 스튜디오드래곤, 에스엠, SM C&C, 팬엔티테인먼트, YG PLUS, 게임빌, CJ E&M, 지니뮤직, 오로라, 디앤씨미디어 등
지배구조, 융합빅데이터플랫폼, IP	카페24, NAVER, 카카오, 엔씨소프트, 게임빌 등
사물인터넷(IoT)	엔텔스 등
5G 등 통신인프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엔텔스, 슬리드, RFHIC, 에이스테크, 삼지전자, 텔코웨어 등
가상현실(VR)	덱스터, 미투온 등
클라우드	비트컴퓨터 등
보안	지란지교시큐리티, 라온시큐어, 코나아이 등
전기차 이차전지	포스코켐텍, 에코프로, 엘앤에프, 일진머티리얼즈, 코센, KG케미칼, 코스모화학, 신흥에스이씨, 코센, LG화학, 삼성SDI 등
전기차 부품	삼화콘덴서, LG전자, 아모텍, 우리산업 등
자율주행차	한컴MDS, 유니퀘스트, ISC, 해성디에스, 넥스트칩, 캠트로닉스, 팅크웨어, 한라홀딩스 등
수소연료전지차	뉴로스, 코오롱머티리얼 등
블록체인	삼성에스디에스 등
양자정보통신	SK텔레콤 등
마이크로LED	루멘스 등
스마트 팩토리	에스피지, 에스엠코어, 포스코ICT, 삼성에스디에스, SK, LS산전, 한신기계, 알에스오토메이션, 베셀 등
LNG 및 에너지 프로슈머	포스코대우, SK, SK디엔디 등
의료용 로봇	고영 등
청소용 로봇	유진로봇 등
지능정보기술	코나아이, 지란지교시큐리티, 삼성전자, 더존비즈온, NHN한국사이버결제, 효성ITX, 아이콘트롤스, 에스원, 파크시스템즈 등
(IoT, 빅데이터, AI)	셀바스AI, SKC코오롱PI, 테크윙, 원익QnC, SKC솔믹스, 지니뮤직, 누리텔레콤, 아이엔씨, 싸이맥스, AP위성 등
바이오헬스	엔지켐생명과학, 마크로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펙트론, 케어랩스, 파나진, 에스티팜, 루트로닉, 케어젠, 코오롱, 삼양홀딩스, SK케미칼, SK, 오클랜드시스템즈 등

자료: 하이투자증권

투자 유망 종목

유니퀘스트(077500)

셀바스AI(108860)

2018/07/02

유니퀘스트(077500)

드림텍 등 꿈은 이루어진다

■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 영위하면서 드림텍 등 자회사들 보유

동사는 지난 1993년에 설립되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여 국내 IT업체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림텍 43.4%, PLK테크놀러지 56.4%, 유큐아이파트너스 100.0% 등의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 드림텍 가치 상승할 듯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드림텍은 표면실장기술(SMT, 인쇄회로기판(PCB)에 칩을 실장하는 과정을 자동화한 기술)에 기반한 모듈 제조업체로서 기존 스마트폰 PBA 뿐만 아니라 지문인식 센서 모듈, 자동차 전장 모듈 등으로 제품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문인식 모듈 확대 적용 및 북미형 OLED 디스플레이 PBA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출 6,794억원(YoY+21.9%), 영업이익 406억원(YoY+866.7%)으로 실적 터어 라운드가 가속화 되었으며, 올해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드림텍은 미국기업과 함께 심전도 검사용 무선 바이오센서 패치를 개발 중에 있다. 수술 및 검진의 무선화를 실현함으로써 간편하고 청결하게 의료 행위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에 있어서 IT 장비를 이용해 수치화, 데이터화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상용화가 본격화 될 경우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 PLK테크놀로지 ADAS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성 부각될 듯

동사의 또 다른 주력 자회사인 PLK테크놀로지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출발한 업체로 첨단 운전보조시스템(ADA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PLK테크놀로지는 현대차 및 기아차에 차선이탈경보장치(LDW)를 공급한 적이 있으며, 금호고속과 대우버스에 앞차 추돌경보장치(FCW)를 공급하기도 했다.

ADAS 핵심기술인 알고리즘 기술을 통하여 모빌아이처럼 ADAS Chip을 자체 생산하면서 향후 해외 시장 중 중국을 공략할 예정으로 가시화 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 우호적인 정부정책으로 벤처기업 투자 수혜 받을 듯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 우호적인 정부정책 환경하에서 동사는 창투사 유큐아이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조합 등에 투자하고 있어서 향후 보유종목의 IPO 등으로 투자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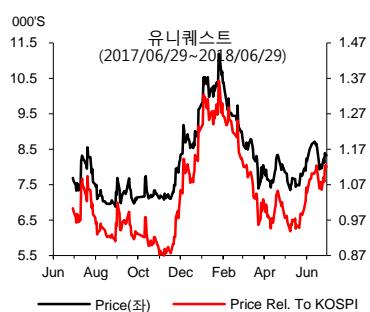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8/06/29)	8,34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3.5십억원
발행주식수	2,715만주
시가총액	226십억원
외국인지분율	55.2%
배당금(2017)	100원
EPS(2017)	449원
BPS(2017)	6,494원
ROE(2017)	6.9%
52주 주가	6,890~11,200원
60일평균거래량	91,346주
60일평균거래대금	0.7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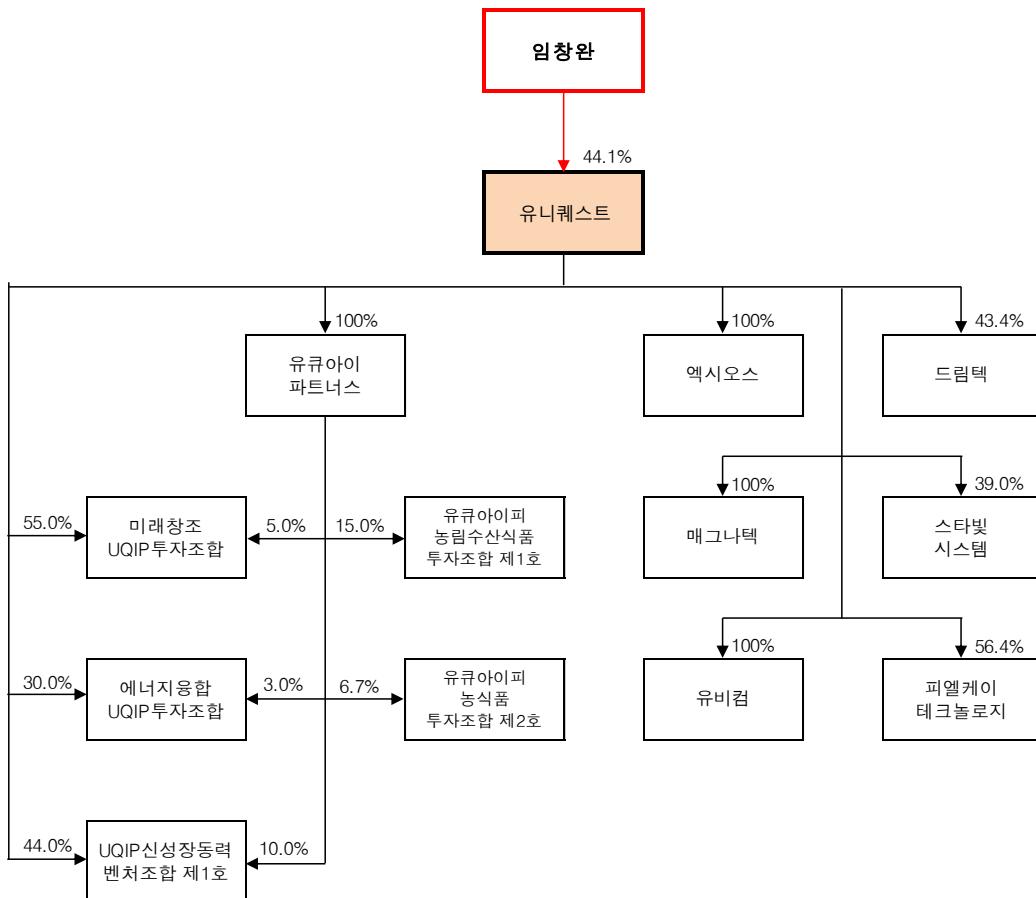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4	2,823	103	192	155	154	570	8.6
2015	2,960	90	19	23	23	86	44.1
2016	2,636	78	46	28	43	160	45.9
2017	2,461	88	172	136	121	449	21.5
2018E	2,650	100	250	200	168	620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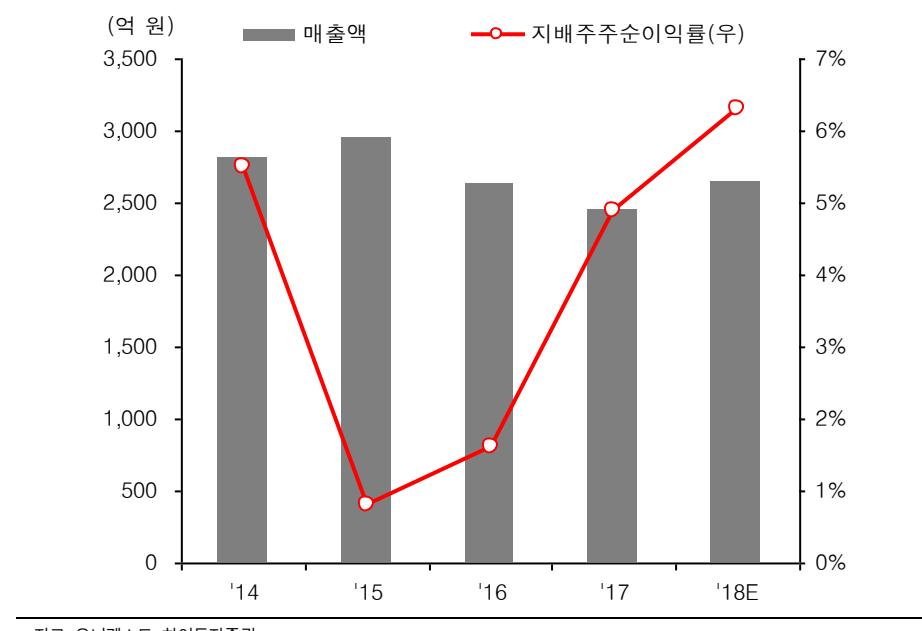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유니퀘스트 지배구조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유니퀘스트 실적 추이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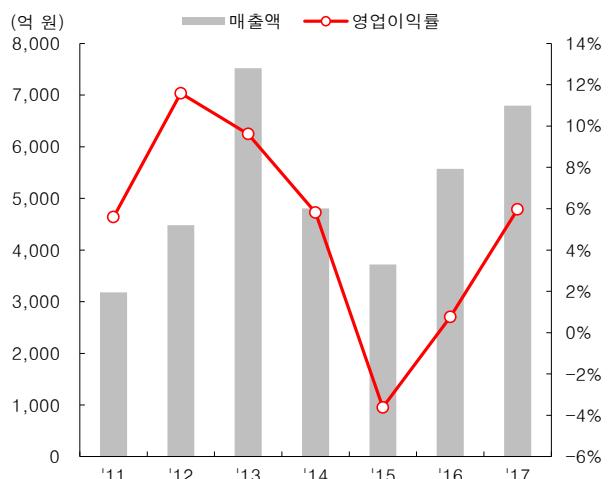
<표 3> 반도체 사업부문 전방산업별 매출비중

구분	'15	'16	'17	'1Q18
디지털 가전	35.4%	19.9%	22.5%	25.4%
무선단말기	23.8%	25.2%	15.1%	8.5%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	19.8%	15.5%	16.4%	22.8%
산업 관련	11.3%	19.8%	24.9%	23.0%
자동차 관련	6.2%	17.2%	17.4%	15.6%
컴퓨터 관련	3.2%	2.0%	2.9%	2.7%
기타	0.3%	0.3%	0.7%	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유니퀘스트,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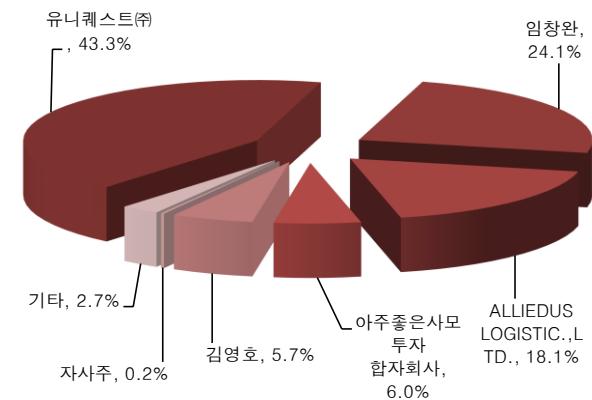


<그림 6> 드림텍 실적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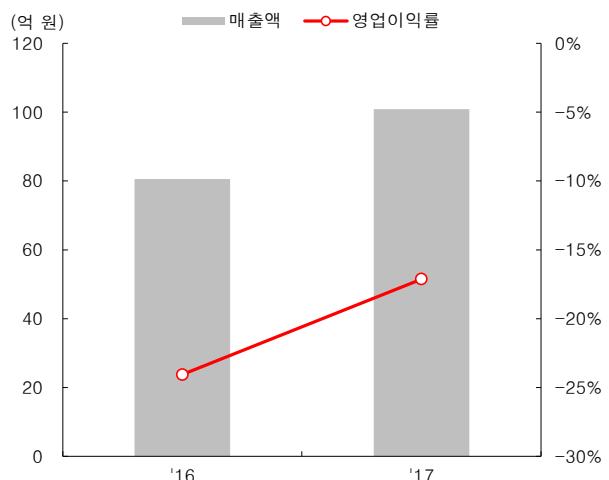
자료: 드림텍, 하이투자증권

<그림 7> 드림텍 지분구조(2017.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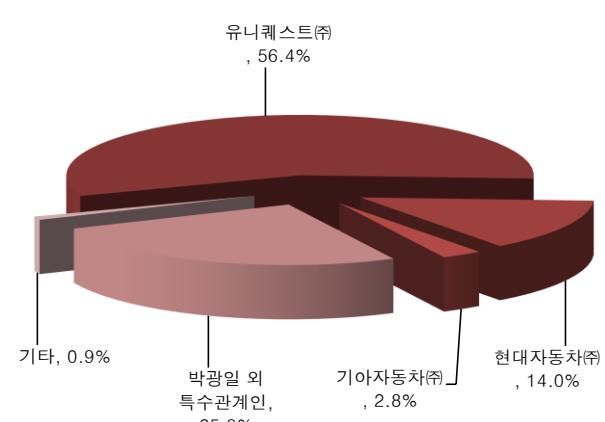
자료: 드림텍, 하이투자증권

<그림 8> 피엘케이테크놀로지 실적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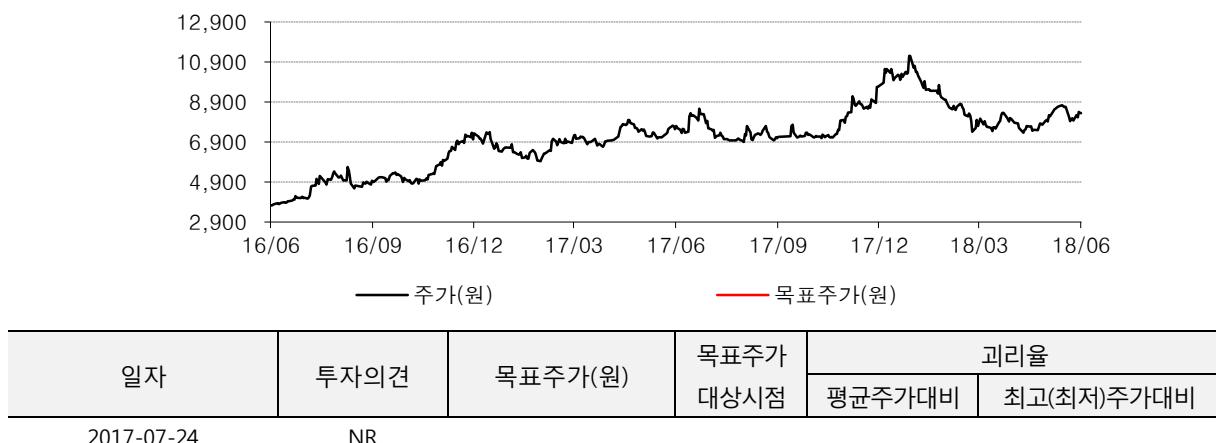
자료: 피엘케이 테크놀로지, 하이투자증권

<그림 9> 피엘케이테크놀로지 지분구조(2017.12.31 기준)



자료: 피엘케이테크놀로지,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유니퀘스트)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9%	6.1%	-

2018/07/02

셀바스AI(108860)

의료 서비스 분야 진출로 성장성 부각

■ 필기, 영상, 음성 등 패턴 인식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동사는 지난 1999년에 디오텍으로 설립되어 필기지능, 영상지능, 음성지능 등 패턴 인식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 전문기업이다. 자체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하여 동사의 핵심기술인 필기지능, 영상지능, 음성지능 등 패턴 인식의 활용 및 고도화로 스마트 디바이스뿐 아니라 의료, 금융, 자동차,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동사는 셀바스 헬스케어(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점자정보단말기 등 생산) 60.0%, 인프라웨어(오피스 소프트웨어 업체) 22.9% 등의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 의료 서비스 분야 관련 매출 가시화로 성장성 부각될 듯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동사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 실시간 의료녹취 서비스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와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질병예측 서비스 셀비 체크업(Selvy Checkup) 등이 있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음성 녹음부터 자동 텍스트 변환, 교정 및 저장까지 의료녹취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의료녹취 서비스이다. 동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인식 성능을 개선시켰으며, 진료용, 수술용, 판독용, 상담용 등 각 분야별로 최적화된 음성 인식기를 통해 현재 국내 대형병원들과 공동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매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병원과는 시범 운영 확대 및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셀비 체크업은 인공지능 기반 질병예측 서비스다. 의료 빅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건강검진기록 입력 시 폐암, 간암 등 주요 6대암과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 주요 성인병의 4년 이내 발병 확률을 예측해 준다.

지난해 프랑스 재보험사 스코르 글로벌 라이프 한국지점과 인공지능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교환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등 해외 수출도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 될 듯

기기들의 인공지능 적용 확대 및 의료 서비스 분야 매출이 가시화 될 뿐만 아니라 셀바스 헬스케어의 수출확대로 매출성장이 예상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8/06/29)	5,74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1십억원
발행주식수	2,206만주
시가총액	127십억원
외국인지분율	4.4%
배당금(2017)	-
EPS(2017)	-원
BPS(2017)	2,072원
ROE(2017)	-%
52주 주가	3,200~7,280원
60일평균거래량	1,240,703주
60일평균거래대금	7.7십억원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4	236	-1	-46	-44	-45	-	-
2015	333	-7	-8	-7	-9	-	-
2016	354	-84	-191	-193	-164	-	-
2017	469	6	-43	-43	-39	-	-
2018E	560	60	50	43	38	173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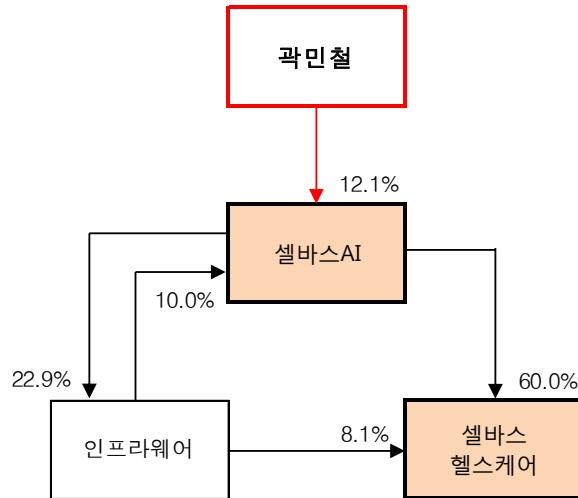
자료: 셀바스 AI, 하이투자증권

<표 4> 셀바스 AI 사업 내용

분류	제품군	내용
인공지능 서비스	음성지능	Selvy STT: 소리정보를 문자, 명령어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변환해주는 음성기술 Selvy TTS: 문자정보를 Natural Human Voice로 바꾸어 들려주는 음성기술
	필기 및 영상지능	Selvy Pen: 필기 궤적 패턴을 인식하여, 다양한 단말기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솔루션 Selvy OCR: 카메라 통해 출력된 글자, 이미지를 인식기술을 통해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솔루션
	Selvy Medivoice	음성 녹음부터 자동 Text 변환, 교정 및 저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의료 녹취 서비스
	Selvy Checkup	인공지능 기반의 질병 예측 서비스.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성인병(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등) 및 6대 암 발병 확률 예측
	Selvy Chatbot	자연어 대화형 상담 에이전트 시스템. 특정영역 업무를 채팅로봇(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처리하는 서비스
	Selvy Drive	운전자 행동패턴을 예측하고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지능형 AVN 서비스
솔루션	전자사전	각국의 언어 간 사전, 백과사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당사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술과 접목시켜 모바일 단말기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전 소프트웨어 솔루션
의료진단기기	체성분 분석기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 발생되는 저항값(인피던스)을 분석해 인체 내 수분, 근육, 지방 등의 체성분을 확인하는 제품
	자동혈압계	오실로메트릭 방식을 기반으로 커프의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커프에 생기는 압 진동을 통해 혈압을 측정하는 제품
보조공학기기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인 각종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자동 점자 모듈과 음성으로 전환해 주는 정보통신기기
	독서확대기	저시력을 가진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인 인쇄지의 작은 글씨를 읽기 편하도록 크게 확대하거나 색상을 반전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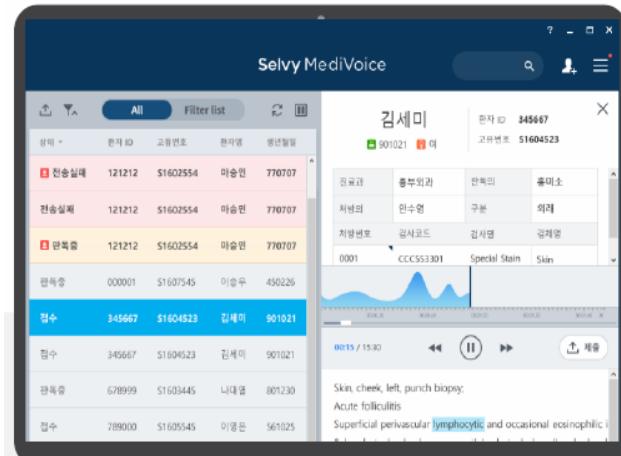
자료: 셀바스 AI,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셀巴斯AI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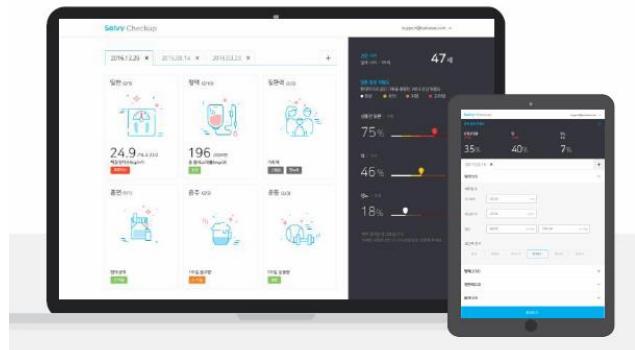
자료: 셀巴斯AI, 하이투자증권

<그림 11>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



자료: 셀巴斯AI, 하이투자증권

<그림 12> 셀비 체크업(Selvy Checkup)



자료: 셀巴斯AI,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셀바스AI)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8-07-02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9%	6.1%	-